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2월 2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31호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대사회 · 미래전략 강구 나선 조계종

자승 스님, 신년회견서 종무기조 · 사업계획 밝혀

오는 10월 임기 만료되는 조계종 제34대 집행부가 올해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는 종무기조를 세웠다. 더불어 차기집행부를 돕기 위한 중장기적 종책 연구도 착수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무기조를 비롯해 주요사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서 기자들 질문에 직접 답하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시민단체와 차별금지법 공론화
대화의 場 통해 이웃종교 대화
종령기구 재편… 종책연구 강화
"종단화합 이끌 선거법 절실"

차별금지법 입법 지원

이 자리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힘줘 말했다. 스님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제시한 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는 소수세력이 정치적 · 경제적으로 서로 결탁해 특권을 누리며 헌법정신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헌법정신을 뒷받침하는 차별금지법률이 논의됐으나 일부 오해와 반대로 지체되고 있다"면서 "다문화 다종교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고귀하고 천함은 혈통이나 신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다. 조계종은 차별받고 있는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고 차별금지법의 국회 입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관련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고,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를 구성하고, 종교간 대화의 장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백년대계본부' 신설

300만 명의 불교신자 감소라는 충격적인 통계청 결과에는 '백년대계본부'라는 새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단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강구하는 한편, 차기집행부가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는 중장기적 종책을 통해 종단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조계종은 11일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 · 공포하고, 12일 사무총장으로 일감 스님을 임명했다. 본부장은 아직 미정이다.

백년대계본부는 '자성과쇄신 결사추진본부'와 '불교사회연구소' 종무를 승계하며 △미래 사회 변화상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과 해법 연구 △종단 미래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마련 △사회갈등에 대한 화쟁적 해법 마련 △각종 조사 · 연구 · 발간사업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본부 내 불교사회연구소 · 화쟁위원회 · 사부대중공사 추진위원회 · 미래세대위원회 · 종책개발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난 2년간 조직되지 못한 미래세대위원회는 백년대계본부서 싹을 틔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결사본부와 불교사회연구소 관련 종령은 폐지됐다.

본부는 본부장 · 지도위원회 · 운영위원회 · 불교사회연구소 · 각 위원회 · 사무총장 ·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본부장은 종사 이상 비구로 총무원장이 임면하도록 했다. 특히 지도위원회는 행정 · 입법 · 사법 등 영역서 경륜과 원력을 가진 고위직 역임자 중 종단 미래 종책에 관심이 있는 위원들로 꾸려질 예정이어서 종책연구가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백년대계본부는 약 1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결사본부 보조금과 불교사회연구소 후원금을 승계하는 만큼 백년대계본부가 종단 내 '싱크 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조계종은 기대하고 있다.

"퇴임 이후 평범한 삶"

한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직선제 △멸빈자 사면 △퇴임이후 행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대답은 관련 부서장 스님이 했지만 기자회견 말미 자승 스님이 직접 견해를 밝혔다.

자승 스님은 먼저 직선제와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거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대중의 뜻을 존중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선거법은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종단 화합을 이뤄내는 방법이라면 어떤 선거법이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300만 명의 불자가 줄어들었다는 인구센서스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불자가 감소하는 데는 우리들 잘못이 있다. 사부대중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비불자들을 귀의시키려 노력했는지 나부터 스님 개개인, 불자들 모두의 허물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침통한 속내를 내비쳤다.

자승 스님은 마지막으로 총무원장 퇴임 이후 행보에 대해 "정진하고 기도하는 평범한 대중으로 살 생각"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총무원장 3선이나 동국대 이사장직 취임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서울대병원 서울본원에 분향소가 마련된 11일 오후, 안타까움에 애도하는 한 스님의 뒷모습과 달리 신념에 따라 소신공양한 정원 스님의 영정 속 모습은 밝기만 하다. 사진=노덕현 기자

'朴 퇴진' 소신공양 정원 스님 입적

7일 광화문 광장서 소신공양… 각계 추모 물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소신공양한 정원 스님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행복사에 주석한 정원 스님은 1월 7일 새해 첫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 오후 10시 30분 경 몸에 불을 당겨 소신공양을 시도했다. 스님은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9일 오후 7시 40분 경 끝내 입적했다. 향년 64세. 사인은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산하 불교위원회서 활동하기도 했던 정원 스님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불거진 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왔다.

소신공양 현장서는 "내란사범 박근혜 체포하라"는 스케치북 문구와 함께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나의 죽음이 어떤 집단의 이익이 아닌 민중의 승리가 돼야 한다"면서 "제도화된 수사로 소신공양을 수식하지 마라. 나는 우주의 원소로 돌아가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라"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다.

정원 스님의 입적 직후 불교계는 물론 정치계서 큰 애도를 표했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는 "정원 스님께서 뭇 삶을 지극한 자비로 섭수하고자 발원하시고 스스로 등신불이 되셨다"며 "스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보살행을 보이셨다. 다시 이 같은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동국대, 불교생사철학 연계전공 신설된다

13일 설명회 가져… 불교대학 특성화 기대

평생교육원 · 한의대 연계 강의
전공 학사학위 취득 가능해져

동국대 불교대학을 주축으로 '불교생사철학' 연계전공이 2017년도 신학기부터 신설된다. 융복합 교육이 추세인 현 상황에서 불교대학 특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신성현)과 융복합교육센터(센터장 임중연)는 함께 불교생사철학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1월 13일 만해관 B256 강의실에서 '2017 불교생사철학 연계전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불교생사철학 연계전공을 추진한 고영섭 불교학과 교수를 비롯해 오지연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정승현 한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전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오진탁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장의 특강도 진행됐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불교생사철학은 불교철학과 전통윤리, 체질의학에 기초해 심신의 생사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융 · 복합을 통한 통합적 이해를 요구하는 최근 연구경향에 맞춰 동국대가 선보이는 야심작이기도 하다.

불교생사철학 전공은 불교학을 기반으로 평생교육원과 한의대학이 연계돼 커리큘럼이 이뤄진다. 첫 학기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불교적 성찰', '인간 이해와 생명윤리', '심신의 생사' 등의 과목이 불교생사철학 연계 전공으로 신설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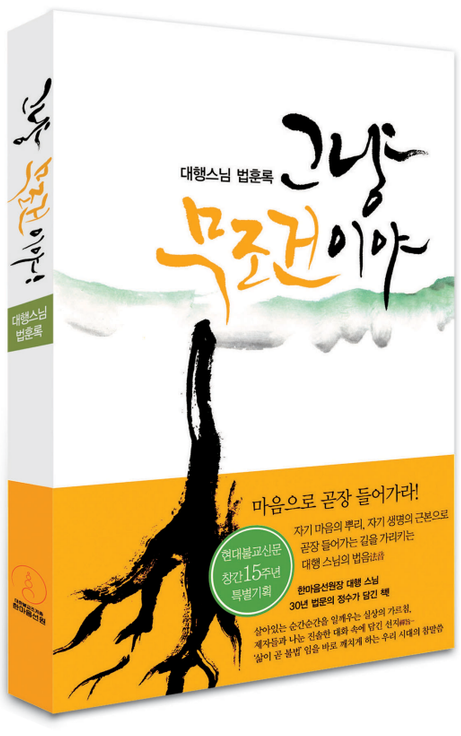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총 36학점을 취득하고, 3 · 4학년 과정서 개설된 전공 전문으로 전공최저이수 학점의 50% 이상을 이수한 뒤 졸업논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한 학생에게는 '불교생사철학 학사' 학위가 인정된다.

이에 대해 고영섭 교수는 "인간소외 · 생명경시와 같은 문제가 커지면서 인간에 대한 총체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불교생사철학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학위를 취득하면 죽음준비상담사, 자살방지상담사, 호스피스, 장의사 등의 진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대학의 경우 불교학 학사와 불교생사철학사 학사를 동시 취득할 수 있는 전공이 생기는 것이다. 불교대학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www.hyunbulshop.com